

박노자의
지방선거
결과 평가 3면



열우당과 김근태 3면
존 몰리뉴의 맑스주의 입문 4면
칠레 중고등학생 투쟁 승리 8면

알렉스 캘리니코스의
세계 경제 진단

5면



1호 2006년 6월 17일

국제적 관점 | 분명한 주장 | 회피하지 않는 자세

<http://www.counterfire.or.kr>

전쟁과 신자유주의에
맞서 지피는

맞불

값 600원

학살자 미군은 이라크를 떠나라

학살 도우미 자이툰도 떠나라

하디타 학살은 미국이 이라크에서 저지르고 있는 야만을 상징한다. 이라크의 한 작은 마을에서 미군은 여성, 노인, 아이를 포함해 24명의 무고한 민간인을 거리낌없이 살해했다. 그 뒤 이샤키, 사마라, 라마디 등에서 미군이 노인과 어린이, 임산부와 장애인을 학살했다는 폭로가 꼬리를 물고 이어졌다.

아부 그라이브 고문 폭로 때와 마찬가지로 부시와 럽스펠드는 이 사건이 몇몇 “썩은 사과들” 때문이라고 말한다.

그러나 하디타는 결코 ‘일탈’이나 ‘예외’가 아니다. 그것은 제국주의 점령 정책의 필연적 결과다. 그리고 부시는 “썩은 사과들”을 좋아한다.

하디타 학살을 자행한 해병 대대는 2004년 팔루자 공격 때 선봉에 선 바로 그 부대다. 이 부대와 동행했던 NBC 방송의 케빈 사이트에 따르면, 당시 팔루자에서 병사들이 받은 명령은 “모두 죽여라”였다.

사용이 금지된 백린탄 — 살을 태우는 화학무기 — 을 사용한 것도, 부상을 입고 무기를 빼앗긴 채 누워 있던 저항세력의 머리에 총알을 박은 것 — 나중에 동영상이 폭로됐다 — 도 바로 이 부대였다. 그러나 이 부대의 어느 누구도 처벌받지 않았다.

하디타에서 벌어진 일은 지난 3년 동안 이라크 대부분 지역에서 진행돼 온 일들과 크게 다르지 않다.

바그다드 함락 직후 몇 달 동안 미국은 하디타에서 성공을 자랑했었다. 미군은 하디타 댐에 있는 발전소를 재건했고, 얼마 안 되는 아제르바이잔 군대에 치안을 넘길 정도로 자신 만만했다.

그러나 2003년 여름에 미군이 대규모 수색 작전을 통해 7백 명이 넘는 청년들을 체포하면서 분위기는 급변했다. 이 일은 이

미 자라나고 있던 반점령 정서에 기름을 끼얹는 격이었다. 2004년 4월 하디타는 이라크 전역에서 벌어진 반란에 가세했다.

미국의 대응은 마을을 고립시키는 것 — 다른 많은 곳에서 그랬던 것처럼 — 이었다.

미군은 마을의 다리를 거의 모두 폭파했고, 저격수 부대를 배치했다. 나중에는 시아파로 구성된 암살단을 데려왔다. 마을에 폭동이 일어났고 미군과 점령세력이 임명한 지역 관리들이 쫓겨났다. 2005년 여름에는 하

하디타에서 학살당한 어린 아기

디타의 병원이 교전 중에 파괴됐다.

한 하디타 주민은 미군이 저항세력이 공격을 멈추지 않으면 민간인들을 죽이겠다고 협박하고 있다고 말했다. 11월 19일 미군 병사들은 이 협박을 행동으로 옮겼다.

이라크 현지 언론인 다르 자마일은 하디타 같은 일들이 이라크에서는 일상으로 일어나고 있다고 말한다. 그는 ‘이라크인권감시기구(MHRD)’라는 단체한테서 받은 보고서의 내용을 전하며 이렇게 말했다.

4면 하단으로 이어짐

6·24 반전행동

일시: 6월 24일(토) 오후 3시

장소: 대학로 마로니에 공원(집회후 광화문으로 행진)

주최: 파병반대국민행동



인용해도 될까요?

“그들은 우리 것이든 자신들의 것이건 생명을 존중하지 않는다. ... 그들의 행동[자살]은 절망감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대한 비대칭 전쟁 행위”

— 관타나모 수용소 수감자 3명 집단 자살에 대해 관타나모 기지 사령관 해리 해리스가 내뱉은 냉혹한 말

“우리당이 좌파라고 생각하는 국민들의 오해를 풀기 위해서는 다른 대안이 필요하다.”

— 김근태의 개혁 ‘이미지’조차 부담스러운 열우당 김덕규

“유권자들은 한나라당 후보로 누가 나왔는지도 모른 채 반대당이라는 점만 보고 표를 던진 것이 이번 선거의 정확한 모습이다. ... 한나라당은 이렇게 거저 줘야 시피 한 승리 앞에 두려운 마음을 가져야 한다.”

— 〈조선일보〉의 충고

“아직 밝혀지지 않았지만 주목받아야 할 또 다른 ‘하디타 사건’이 이라크에서 너무 너무 많다.”

— 이라크인 의사 살람 이스마엘

“1950년 7월 마지막 주는 낙동강 방어전을 위해 용단폭격까지 서슴지 않았던 다급한 시기였다. 내가 노근리에 있어도 발포 명령을 했을 것”

— 미군의 노근리 학살을 옹호하는 지만원

“월드컵 분위기를 내기 위해 단채로 붉은색 티셔츠를 입으라는 주문은 어느 정도 납득할 수 있지만, 티셔츠와 두건을 직원들의 사비로 구입하라는 것은 지나친 처사[이며] ... 아침 일찍 나와 칠곡자점 댄스 연습을 하라는 것을 이해할 수 없다.”

— 뉴코아노조

〈맞불〉창간에 부쳐

이번 호부터 격주간 〈다함께〉가 주간 〈맞불〉로 바뀝니다. 독자들은 이제 격주로 받아보던 신문을 매주 받아보게 될 것입니다. 한 독자는 “수준 높은 좌파 신문을 매주 받아본다는 생각에 가슴이 설렌다”고 썼습니다. 사실, 한국에서 좌파 오프라인 주간지 발행은 매우 드문 일입니다. 우리는 한국 좌파 운동 역사에 새로운 일획을 그었다는 각오로 주간지 발행 작업에 착수했습니다.

이 작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신문이 정기적으로 발행돼야 합니다. 다시 말해, 신문이 약속한 날짜에 꼬박꼬박 독자의 손에 쥐어져야 합니다.

우리는 신문 발행의 정기성 확보를 위해 당분간 〈맞불〉을 8면으로 낼 것입니다. 그 동안 16면짜리 〈다함께〉를 구독하던 독자들은 정보량이 절반으로 줄어

드는 것에 틀림없이 큰 아쉬움을 느낄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초유의 실험을 하고 있습니다. 주간 신문을 발행한다는 것은 커다란 변화를 요구합니다. 기자들과 회원들이 모두 ‘주간형’ 인간으로 철저하게 변신해야 합니다. 즉, 수 년 동안 몸에 배어 있는 2주 단위의 활동 패턴들 — 기사 작성, 제작, 배포, 판매, 발송, 보고 등 — 을 주간 단위로 맞춰야 합니다.

우리는 새로운 상황에 최대한 빨리 적응하려 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가피하게 얼마 간의 준비 기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당분간 8면을 내면서 주간지 발행을 안착시키는 데 주력할 것입니다.

그 사이에 정보량 감소로 인한 독자들의 정치적 갈등은 인터넷 판을 통해 채울 것입니다. 우리는 창간호 발행과 함께 인



터넷 판(www.counterfire.or.kr)을 동시에 개장합니다. 인터넷 국제 판과 보충 온라인 기사를 통해 종이 신문이 미처 담지 못한 내용을 보완하려 합니다.

그럼에도 급변하는 상황들이 빚어내는 다양한 쟁점들에 적절하게 대처하기 위해서는 오래지않아 증편을 해야 한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 3년 반 동안 〈다함께〉를 애독해 주신 독자들에게 연대의 인사를 드리며, 〈다함께〉에 보내 준 독자들의 애정이 〈맞불〉로 계속 이어지기를 바랍니다.

2006년 6월 13일
발행인 김인식

“외국인정책 기본 방향” — 차별 위에 덧칠해진 인권

정부는 지난 5월 말 “외국인정책 기본방향 및 추진체계”를 확정하면서, 외국인 정책을 “통제와 관리 중심”에서 “인권과 포용”을 기틀 삼아 “상호이해와 존중”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하겠다고 밝혔다.

그 동안 한국은 일본과 함께 이민자와 이주노동자 정책이 가장 폐쇄적이고 통제가 강한 국가로 분류돼 왔다. 이번에 정부가 내놓은 방안도 차별적인 제도의 틀은 그대로 유지됐다.

한국에 체류하고 있는 82만 명의 외국인들 중 아시아계가 80퍼센트에 이른다. 그리고 이들은 대부분 이주노동자들이다. 최근 결혼 여성 이주자들도 급격히 늘고 있다.

이들 중 다른 동포들보다 차별을 받아 온 중국과 옛 소련 출신 동포들의 체류와 취업의 폭이 전보다 확대된 점이 그나마 이번 조

처에서 나아진 점이다. 이들은 1회 방문시 3년 간의 체류와 취업이 허용됐다. 그러나 동시에, 정부는 입국자 규모를 제한하기 위해 연간 쿼터 설정, 한국어 시험 성적으로 입국 순위를 결정하는 등의 규제를 두어 차별은 여전하다.

다른 아시아 지역에서 온 이주노동자들에게는 이조차도 허용되지 않는다. 야만적인 ‘인간사냥’인 이주노동자 단속과 추방은 “법적 근거”를 더 자세히 마련해 계속 유지된다. 학교를 다니는 자녀를 둔 미등록 노동자들이 단속에 걸렸을 때 잠시 추방 시한을 연장해 줄 뿐이다. 고용허가제도 그대로다.

한국인과 결혼한 여성 이주자들에 대한 지원도 이혼의 귀책 사유 입증 책임을 완화하고 약간의 사회복지를 제공하는 정도다. ‘위장 결혼’을 막는다는 구실로 결혼과 동

시에 영주권이나 국적을 부여하지는 않는다. 이혼한 경우 자녀나 한국인 부모 등 부양 가족이 있을 때만 체류와 취업이 보장된다.

정부는 한국인과 중국·옛 소련 출신 동포를 포함한 이주노동자들 사이에 차별을 두고, 또 중국·옛 소련 동포와 다른 아시아계 이주노동자들 사이에 차별을 두어 이들을 모두 분열시키는 정책을 고수하고 있다. 그리고 이런 차별은 한국에서 태어나는 결혼 이주자들의 자녀들에 대한 차별로도 이어질 게 분명하다.

이주자들에 대한 억압과 차별을 유지한 채 몇몇 ‘인권’적 조치를 취한다고 해서 지난 4년 간 노무현 정부가 강화해 온 인종차별적 정책의 본질이 가려질 수는 없다.

이정원

경찰은 ‘다함께’ 수사를 중단하라!

열우당 정부의 선거법에 의한 ‘다함께’ 탄압에 항의하는 움직임이 확산되고 있다. 최근 〈민중의소리〉, 〈시민의신문〉, 〈경향일보〉, 〈연합뉴스〉, 〈인터넷 판갈이〉, 〈참세상〉, 〈뉴시스〉 등의 매체에서 선거법을 발미로 한 경찰의 ‘다함께’ 사무실 압수수색이 보도됐다.

지난 7일 마포경찰서 앞에서 열린 규탄 기자회견에는 ‘다함께’, 민주노동당, 인권실천시민연대, 향린교회 등 1백여 명의 활동가들이 모여 선거법을 발미로 견해 표명의 자유를 침해하는 경찰을 규탄했다.

이 날 정종권 민주노동당 서울시당 위원장은 “노무현 정부가 지방선거 패배 이후 하이닉스 매그나칩 노동자 탄압, 코오롱 노동자 탄압에 이어 ‘다함께’ 사무실 압수수색” 등으로 분풀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경찰의 압수수색은 명백한 정치 탄압이다. 경찰이 들이치는 선거법 93조는 시민의 정치적 권리를 심각하게 제약하는 반민주 악법이다. 이 조항에 따르면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

치기 위해 ... 정당 또는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지지, 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는 ... 배부, 첩부, 살포, 상영 또는 게시할 수 없다.”

이 조항은 헌법이 보장하는 언론·출판의 자유에 정면으로 위배되고 있는 것으로, 법 개정 당시 수많은 논란을 빚기도 했다.

6월 7일 마포경찰서 앞 규탄 집회

이 날 기자회견에서 나성국 향린교회 부목사는 “〈다함께〉 신문과 같은 언론이 사람들에게 선거 관련 정보를 분명하게 전달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고 올바른 일”이라고 지적했다. 또, 조·중·동과 같은 주류 언론에 대해 이 조항을 적용하지 않는 것은 “이중잣대”라고 했다.

실제로 그렇다. 지난 5월 29일자 〈조선일보〉에서 류근일은 “한미동맹을 ‘관 뚜껑 닫기 전의 시체’로 만”든 정권을 “더는 좋아해 줄 수 없다는 것이 근래의 민심”이라며 “유권자들도 자신들의 선택”에 대해 “깊이 생각하”라며 사실상 열우당에 투표하지 말고 한나라당에 투표하라고 선동했다.

2002년 대선 때 〈중앙일보〉의 자매지인 〈월간 에머지〉는 “남북관계, 자유주의 기업” 등 “자유주의 원칙”에 따라 “이회창 후보를 지지” 한다고 아예 공개 선언한 적도 있다.

항의가 확대되자, 경찰이 무리한 법적용을 시도했다는 점도 폭로되고 있다. 경찰은 “한나라당원의 신고 때문이다”, “〈다함께〉에 대해 잘 몰랐다”고 발뺌하며 사태가 확대되는 것을 은근슬쩍 무마하려 한다.

아직 경찰은 ‘건수 올리기’ 식 수사를 포기하지 않고 있다. 출두 요구를 받은 ‘다함께’ 회원들은 “선거법 93조가 명백한 반민주 악법이기 때문에 출두 요구에 불응할 것”임을 밝히고 있다.

경찰은 지금 당장 ‘다함께’에 대한 수사를 중단하라!

한규한

열우당은 폐기 처분돼야 마땅하다

김근태에 기대 거는 건 또다시 환상 쫓기

열우당 실용파들의 호들갑과 달리 정동영의 ‘실용적 개혁’과 김근태의 ‘실사구시 개혁’은 별다르지 않다. 김근태는 이미 2002년 대선 때부터 “시장주의자”를 자처하며 “구조조정의 걸림돌”이라고 노조를 비난했던 자이다.

그는 노무현 정부 초기에 원내대표로서 이라크 파병안 통과에 앞장섰고, 화물연대 파업에 “법과 원칙에 의한 대처”를 주장했다. 보건복지부 장관 시절에는 “더 내고 덜 받는다” 국민연금 개악과 연금 적립금의 부동산·주식 투자를 추진했고, 최저생계비 대폭 인상도 가로막았다. 건강보험 예외 병원과 영리병원 허용에도 앞장섰다. 결식아동에게 건빵·단무지 반찬의 도시락이 배달된 것도 그가 장관일 때였다.

그의 개혁에 대한 불철저함도 증명돼 왔다. 그는 2004년 국가보안법 공방 때 “폐지안을 내는 것은 중요한 문제가 아니다”라며 ‘국가보안법 폐지 추진위’ 참여를 거부했다. 한-칠레FTA도 찬성했던 그는 지금 한미FTA도 찬성하며 정부의 비정규직 개악안도 지지한다.

이런 자를 얼굴 마담으로 세워 놓고 열우당이 “열우당 고쳐쓸 수 있다”(김두관, <한겨레21>)고 하는 것은 웃기는 사기극이다.

이제 열우당 내 개혁파와 손잡고 개혁을 추진할 수 있을 거라는 헛된 기대는 철저히 폐기돼야 한다. 민주노동당 노회찬 의원은 “열우당과 함께, [때로는] 열우당 옆에서 있다가 피해를 본 측면이 있다”고 인정했다.

많은 사람들이 한국-노르웨이 월드컵 평가전을 보고 잠든 지난 6월 2일 새벽, 하이닉스 매그나칩 농성장은 경찰특공대의 군화발에 짓밟혔다. 특공대가 지나간 농성장 바닥에는 노동자들이 가족에게 쓴 소박한 소망이 적힌 종이비행기들이 찢겨져 있었다.

노동자들을 짓밟고 신자유주의적·친제국주의적 정책을 추진해 온 노무현과 열우당에 대한 분노의 ‘쓰나미’를 이제 강력한 투쟁으로 조직할 때이다.

현대차 CEO출신 이계안(왼쪽)을 비서실장으로 임명하고 ‘성장’을 외치고 있는 김근태

전지윤

“씩씩이만 막아 달라”던 열우당의 절규는 분노의 ‘쓰나미’ 속에 묻혔다. 놀라울 것도 없다. 2004년 10월 30일 이후 모든 재보선에서 열우당은 참패했다.

그 반사이익을 누린 건 한나라당이었다. 실망한 사람들이 오죽 열우당을 두들겨패주고 싶은 마음이 급했으면 일단 똥 묻은 썩은 몽둥이라도 잡았겠는가. 차떼기·성추행·공천비리 정당이 높은 지지를 받는 희한한 ‘마술’을 부린 장본인은 바로 노무현과 열우당이었다.

노무현과 열우당은 지난 3년 간 개혁을 배신하고 이라크 파병, 비정규직 확대, 노동자 탄압 등 온갖 악행을 저질러 왔다. 이틀에 한 명 꼴로 연

평균 2백17명의 노동자를 구속해 온 이 정부를 손석춘 씨는 “신자유주의 독재정권”이라고 비난했다. 커져이 쌓여 온 이 정부에 대한 증오가 이번엔 우익이 아니라 대중에 의한 탄핵과도 같은 결과를 낳았다.

그러나 “한두 번 선거로 … 어느당이 흥하고 망하고 그런 것”은 노무현에게 “중요한 것이 아니다.” 소위 ‘역발상’의 노무현은 친제국주의·친시장 정책을 포기할 생각이 없다.

<조선일보>도 “노사관계 안정화 방안, 주한미군 기지 이전 [등] … 이 핑계 저 핑계 대면서 내팽개쳐 둔 것”들을 빨리 밀어붙이라고 주문했다.

선거 참패 후 이어진 하이닉스 매그나칩과 코오롱 농성장에 대한 경찰특공대 투입과 대추리 김지태 이

장 구속은 이에 대한 응답이었다.

오히려 열우당 안에서는 개혁의 껍데기마저 없애자는 목소리가 높다. 국민의 2퍼센트에 불과한 부자들에게 공시가격의 1퍼센트에 불과한 세금을 매기는 종부세도 재검토하자는 것이다.

친노 언론 <데일리 서프라이즈>의 배삼준은 “부자에게 돈을 거둬 가난한 사람의 환심을 사려는 사회주의 정책”이 문제라며 대표직을 사퇴했다.

이런 분위기 때문에, 이제 개혁 이미지뿐인 김근태가 비대위원장이 되는 것마저 쉽지 않았다. 열우당 실용파는 김근태마저 ‘좌파’라고 마뜩잖아 했다. 그래서 15인의 비대위원은 대부분 실용파로 채워졌고 김근태는 현대차 CEO 출신 이계안을 비서실장으로 임명했다.

박노자 만감



요즘 학술 분야마다 “자본”과 “시장”이 모든 현상들을 설명하는 주된 도구가 돼가는 느낌이다. 내가 꽤나 관심을 갖는 종교학만 해도, “종교 시장” 같은 용어가 거의 고착이 됐다. 꼭 완벽한 틀은 아니지만, 자본주의 사회의 정치 현실을 이해하는 데 아마도 “시장/자본 비유법”이 유용할 수 있을 것 같다.

선거라는 시장에서 기존의 성과와 이미지를 상품 삼아 팔아 결국 “인지도”, “평판”이라는 자본을 축적하는 것이 정당과 정치인 아니겠는가? 물론 선거에서 “판매”를 할 때 ‘비유’ 아니라 실질인 돈 없이는 마케팅이 잘 안 된다는 것도, 즉 후원기반도 정치 자본 형성의 하나의 기원이라는 것도 염두에 놓아야겠지만 말이다.

선거 결과를 반추하면서 – 혹은 정치 자본의 축적법

그렇게 본다면 열우당의 지리멸렬과 한나라당의 압승을 어떻게 봐야 할까? 열우당의 정치 자본이란 실제 정책보다 주로 “이미지”와 정치적 보스들의 경력에 많이 의존해서 축적된 듯하다. 유산된 정책(국보법 폐지 등)을 빼고 실행이 된 정책을 놓고 보면, 열우당은 극소수의 경우를 제외하고 “제2한나라당”의 노릇을 하느라 진땀을 뻘었다.

문제는 아류가 아류일 뿐이라는 것이다. 이라크 파병과 한미FTA를 좋아할 사람들이 “제1한나라당”을 찍을 것이 뻔하고, 그걸 싫어하는 사람들은 그냥 “그 짓 왜 하나” 해서 정치에 염증 느껴 기권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여태까지 열우당이 먹고 산 것이 사실 1980년대부터 쌓인 이미지 자본이지 정책 자본이 아니었을 듯하다. 고문받은 김근태, 녹화교육을 받은 유시민, 진보적 입장에서 북한을 연구하는 이종석 …

통에 그려진 얼굴 보고 사는 상품이 열우당이었는데, 통을 열어보니 조림의 맛

은 그저 그렇고, 실책에 실책을 거듭하는 신자유주의다. 열우당 덕분에 한반도 평화가 유지된다고 보는 사람들도 있는 듯하고, 열우당에 투표해 달라고 <로동신문>이 호소한 것도 웃지 못할 사실인데, 그게 엄청난 오판인 것 같다.

삼성과 LG의 공장과 사무실이 여기에 있는 이상 삼성과 LG의 후원을 받는 정치세력이 서울과 경기도를 불바다로 만들 수 있는 집단에게 자극적인 행위를 할 이유가 있을까? 더군다나 그 집단이 경쟁자인 중국의 예속 하에 들어갈 위험이 있는 지금, 이북 지배층 포섭책은 아마도 권력 교체가 돼도 지속될 듯하다.

1980년대부터 축적된 열우당 리더들의 정치 자본이 이미 바닥났지만, 한나라당의 “개발주의·성장주의·애국주의” 삼위일체의 실질적 모토는 한국 사회의 완강한 소부르주아적 기질에 대단히 잘 호소하지 않는가. 내 경험은 매우 부족하지만 정치를 땅 값 추이로 보는 사람을 수없이 많이 봤다.

그런데 나에게 핵심적 문제는 우리 민주노동당의 자본이 왜 이토록 부족했을까 하는 것이다. 자세한 이야기를 나중에 따로 쓰고 결론은 이렇다. 대체로 좋은 공약만 내건다고 해서 대중이 절로 운집하는 법이 정치시장 바닥에 없는 듯하다. 진보정당의 정치 마케팅은 결국 길거리로 나가서 투쟁한 성과, 그리고 치열한 투쟁의 이미지일 것이다.

KTX여승무원들이 이리 쫓기고 저리 쫓기고 경찰들에게 연행되고 했을 때 우리 민주노동당 지도부가 그들과 함께 길바닥에 앉아 웃고 울고 노래하는 모습을 보였다면 민주노동당에 대한 인식이 좀 다르지 않았을까 싶다. 물론 민주노동당 이야말로 여승무원을 제대로 지지한 유일한 정당이지만, 나는 투쟁의 강도를 말하는 것이다.

■ 출처:
<http://wnetwork.hani.co.kr/gategateparagate>

실천가들을 위한 맑스주의 입문 ①



존 몰리뉴

“지금까지 철학자들은 세계를 이렇게 저렇게 해석해 왔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세계를 변화시키는 것이다.”

청년 칼 맑스가 한 이 말은 런던의 하이게이트 공동묘지에 있는 그의 무덤 묘비에도 새겨져 있다. 그도 그럴 것이, 이 말은 맑스가 자신의 정치 생애 내내 실천하고 저술한 모든 것에 영감을 주었기 때문이다.

그 뒤 1백50여 년이 지난 오늘날 세계를 변화시켜야 할 이유를 찾기는 어렵지 않다. 나라 간 불평등과 국민 내부의 불평등이 엄청날 뿐 아니라 갈수록 더 심각해지고 있다.

상상할 수 없을 만큼 막대한 돈이 무기 생산에 쓰이는 반면, 수많은 사람들이 기본 생필품도 없이 살아가고 있다.

파괴적인 전쟁들, 그로 인한 증오와 인종차별이 확산되고 있다.

거대 기업들과 그들을 대변하는 미국 정부가 노골적으로 세계를 지배하고 있다.

대다수 사람들은 일상 생활, 특히 그들의 정신을 망가뜨리는 일터에서 무기력과 소외를 경험하고 있다.

여성, 즉 인류의 절반은 여전히 예측돼 있다.

우리의 정치인들과 전 세계 지배자들의 위선, 거짓말, 잔학 행위로 지속되고 있다.

지구온난화로 인한 환경과 인류의 재앙 앞에서 각국 정부는 손을 놓고 있는, 범죄나 다름 없는 짓을 하고 있다.

이 모든 것, 그리고 다른 많은 것들을 보면, 우리 인류에게 더 나은 사회가 필요하다는 것을 분명히 알 수 있다. 이 사실을 정말로 이해할 수 없고 이해하려 하지 않는 자들은 현 체제에서 막대한 이익을 얻는 자들, 즉 부자와 권력자뿐이다.

행동지침

그러나 세계를 **어떻게** 변혁할 것인가? 이것이 진정한 문제다.

중요한 직책을 맡고 있는 나쁜 사람들만 바꾸면 되지 않을까? 부시와 블레이어를 제거하고, 그들을 ... 힐러리 클린턴과 고든 브라운으로 교체하면 어떻게?

그게 아니라면, 아마 인류의 의식이 집단으로 바뀌는 것이 필요할지도 모른다. 그러나 우리가 어떻게 해야 그런 일이 일어날까? 기도해야 할까? 그것도 아니라면, 점차 조금씩 개혁을 하나 하나 추진하고 한 나라 한 나라의 상황을 개선하는 것이 해결책일까?

그것이 실효성이 별로 없고 우리에게 혁명이 필요하다면, 그렇다면 혁명이란 무엇일까? 폭탄을 설치하거나 쿠데타 음모를 꾸미는 것?

세계를 변화시키는 것이 정말 **가능**할까? 어쨌든, 사람들은 아주 오래 전부터 — 적어도 스파르타쿠스 이래로 — 그런 노력을 해 왔지만, 지금까지는 그다지 성과가 없었던 듯하다.

이런 문제들을 잠깐만 생각해 봐도, 우리가 사회를 변화시키려면 사회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이해할

중요한 것은 세계를 변화시키는 것이다

필요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우리는 불평등 · 전쟁 · 인종차별과 앞서 말한 다른 해악들의 원인이 무엇인지 알아야 한다.

우리는 체제의 약점이 무엇인지, 적절한 압력을 가해 이 체제를 무너뜨릴 수 있는 단층선이 어떻게 그려져 있는지 알아야 한다.

우리가 투쟁할 때 누가 우리의 친구이자 잠재적 동맹 세력이고 누가 우리의 적이 될 것인지 알아야 한다.

이 사회를 바꾸고자 한다면, 우리는 사회 변화 일반에 적용되는 원칙들을 이해해야 한다.

이것이 바로 맑스주의, 또는 맑스주의 이론의 출발점이다. 단순한 진실은, 체제에 대한 온갖 다양한 비판들, 개혁이나 혁명에 관한 모든 이론들, 변화를 추구하는 모든 전략들 가운데 **단연** 가장 진지하고 가장 깊은 숙고를 거치고 가장 일관되고 가장 효과적인 행동지침이 맑스주의라는 사실이다.

부활

그 때문에, 여러 세대에 걸쳐서, 더 나은 세계를 위해 싸운 가장 단호한 투사들의 다수가 — 그들이 레닌 · 트로츠키 · 룩셈부르크 · 그람시 같은 지식인들이었던 아니면 파리 코뮌의 투사들이나 1917년 페트로그라드의 프롤레타리아 같은 전투적 노동자들이었던 아니면 1960년대의 학생들이었던 간에 — 맑스주의에 이끌렸던 것이다.

때로는, 사람들이 이끌린 특정 형태의 맑스주의가 — 스탈린주의 소련의 맑스주의가 대표적인 사례다 — 진정한 맑스주의를 고약하게 왜곡하고 지독하게 배신한 것이었음이 입증되기도 했다.

이것은 우리가 다뤄야 할 진정한 문제, 쓰라린 유산이다. 그러나 인간 해방을 추구하는 진정한 맑스주의는 항상 살아남았다.

각종 권력자들, 언론, 학자들은 맑스주의가 낡고 시대에 뒤떨어진 쓰레기라고 거듭거듭 선언했다. 그러나 맑스주의는 현상 유지에 반대하는 가장 뛰어난 지적 · 실천적 도전으로서 거듭거듭 부활했다. 이 글은 맑스주의의 기본 사상들을 소개하고 설명할 겨우 간 연재 칼럼의 첫 회다.

물론 쉽게 구할 수 있는 맑스주의 입문서들이 이미 많이 나와 있다. 괜찮은 도서관과 서점에서는 그런 도서들을 적어도 몇 권쯤 구할 수 있다. 그런 도서 중 일부는 매우 훌륭하고, 일부는 매우 딱딱하거나 학술적이고, 일부는 심각하게 잘못돼 있다.

그런 도서 대다수와 이 연재 칼럼의 차이는 무엇 보다 이 칼럼이 행동가를 위한 글이라는 점이다. 즉, 가끔은 청년이 아닌 사람들도 포함하지만 주로 청년 세대를 위한 글이다.

그들은 권위주의적 지배와 신자유주의 세계화, 전쟁에 반대하는 투쟁을 통해 정치에 입문한 사람들, 체제에 대한 비판적 인식을 심화하고 체제에 도전하는 자신들의 전략을 명확하게 다듬으려 하는 사람들이 다.

영국의 혁명적 맑스주의자인 존 몰리뉴의 ‘실천가들을 위한 맑스주의 입문’을 겨우로 연재한다. 몰리뉴는 《마르크스주의와 당》(북악스), 《고전 마르크스주의 전통은 무엇인가》(책길피), 《사회주의란 무엇인가》의 저자이다.

6 · 24 반전 행동

제국주의의 학살, 점령, 억압에 항의하자

히타타 학살은 여러 면에서 1968년 베트남 밀라이 학살과 꼭 빼놓았다. 제국주의 군대의 조직적인 양민 학살이라는 점, 군대와 정부의 은폐 때문에 뒤늦게 폭로됐다는 점이 그렇다. 게다가 점령지에서 원가 진전이 있는 것처럼 선전하고 있는 상황에서

학살이 벌어졌다는 점도 밀라이 학살과 비슷하다. 1968년 북부터 미국 정부는 북베트남 정부와 파리에서 평화 협정을 시작했다. 조지 W 부시는 국민투표, 의회 구성, 새 정부 출범 등으로 이라크에서 민주주의가 진전되고 있다고 선전했다. 밀라이 학살 폭로는 1969년 반전

운동이 대규모로 성장할 수 있는 중요한 배경이었다. 히타타 학살은 전쟁을 둘러싼 부시의 위기가 점점 더 심각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폭로됐다. “테러와의 전쟁”으로 관타나모 수용소에서 3명의 수감자가 자살하는 일이 벌어졌다.

제국주의 학살과 억압이 만천하에 드러나 전쟁 광들이 공지에 몰린 지금, 반전 운동은 중요한 기회를 맞이하고 있다. 한국 반전 운동은 그 어느 때

보다 제국주의가 저지르는 학살과 점령, 억압에 맞서 굳세게 투쟁할 때다. 또한, 미국의 이란 공격이 날을 또 다른 학살과 억압에 반대하고, 제국주의 도우미 점령군 자이툰 부대의 철군을 위한 운동을 확대해야 한다. 6월 24일 파병반대국민행동이 주최하는 반전 행동(오후 3시, 대학로 마로니에 공원)은 그 중요한 계기다.

김광일

》1면에서 이어짐

“2006년 5월 13일 토요일 밤 10시 미군이 이라크 보안군과 함께 바그다드 서부 라티피아에 있는 이라크 주민들의 집을 무장행위로 무차별 폭격했다. 주민들은 맹렬한 폭격을 피해 계곡으로 도망쳤다. 그러자 도망친 주민들을 쫓기 위해 헬기 7대가 착륙했다. 그리고 ... 죽여버렸다. 25명 이상이 희생됐다. ... 미군은 강탈한 집에 저격병을 배치해 더 많은 사람들을 죽였다.” 그러나, 미군은 “이런 일들을 ‘저항세력’ 사살을 위한 작전이라고 발표한다.”

복수극

플러처상을 수상한 언론인 크리스 헤지스는 왜 이라크에서 이런 일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지에 대해 이렇게 말한다.

“이라크의 상황은] 미군 병사와 해병들이 베트남에서 겪은 것과 매

우 비슷하다. 적을 식별하기는 매우 어렵다. ... 따라서 도대체 누가 공격한 건지 알 수 없고, 이 때문에 엄청난 당혹감을 느끼게 된다. 자신들이 현지 주민들에게 완전히 증오의 대상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면 이런 당혹감은 몇 갑절이 된다. 모든 사람들이 적으로 둔갑한다. 그리고 자신의 부대가 공격을 받게 되면 — 예컨대, 자기 부대의 누군가가 사람들 속에 뒤섞여 있던 저격수의 총에 맞거나 한다면 — 무고한 사람들을 겨냥한 복수극이 벌어지게 된다.”

정작 이라크에서는 히타타 학살이 그리 큰 뉴스거리가 되지 못했다는 사실도 이런 학살이 이라크에서 결코 드문 일이 아님을 반영한다. 오죽하면 “미군에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는” 이라크 총리 알 말리키조차 미군의 민간

알렉스 캘리니코스 논평

세계경제의 불안한 줄타기

런던대학교 킹스칼리지 유럽학과 교수 알렉스 캘리니코스가 세계경제의 상태를 압축한다. 캘리니코스는 맑스주의자다. []속의 말은 편집자가 독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덧붙인 말이다.

‘변동성 장세’. 이것은 지난 몇 주 동안 금융시장이 겪은 심각한 혼란을 묘사하기 위해 흔히 사용되는 용어다. 중요한 주식시장들에서 주가가 가파르게 떨어졌다. 비록 이후에 이전 지수를 대부분 회복했지만 말이다.

문제가 가장 심각했던 곳은 빠르게 성장해 온 남반구 경제인 ‘신흥시장들’에서였다. 소위 브릭스(브라질 · 러시아 · 인도 · 중국)가 세계 경제의 미래라는 끝없는 잡담들은 1990년대 ‘닷컴’ 기업들에 관한 근거 없는 도취의 반복과 비슷했다. 그 결과, 엄청난 거액이 신흥시장 경제로 이동했다. 1990년대 초반 멕시코나 몇 년 뒤의 동아시아에 관한 소동을 기억하는 사람들에게 이것은 똑같은 패턴이 반복되는 것으로 느껴질 것이다. 멕시코나 동아시아가 그랬듯이 이제 신흥시장들의 거품도 꺼지는 듯하다.

〈파이낸셜 타임스〉는 이렇게 지적했다. “5월 9일 이후 MSCI[모건스탠리 캐피탈 인터내셔널] 신흥시장 지수가 14.8퍼센트 떨어졌다. 터키는 30퍼센트, 그리고 브라질 · 파키스탄 · 인도는 20퍼센트 정도 떨어졌다. 브릭스 신화를 믿었던 사람들은 이제 브릭스의 명성이 추락하는 것을 보고 있다.”

정확히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에 관해서 많은 혼란이 있다. 대다수 주요 국민경제들은 비교적 건강하게 성장하고 있고(영국은 그 중에서 성장세가 가장 약하다), 특히 미국과 유럽의 기업들은 두

독한 이윤을 얻었다. 그렇다면 금융시장은 왜 땔고 있는가?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이사회가 미국과 세계경제의 순항을 위해 택하고 있는 정책을 살펴보면 적절한 설명이 가능하다.

신자유주의

신자유주의의 특징 중 하나는 국민경제의 운영에서 세계화 · 탈규제화한 금융시장의 영향력이 커진 것이다. 그래서 최근까지 연방준비제도이사회[미국 중앙은행] 의장이었던 앨런 그린스펀은 경제성장 위해 금융시장의 성장을 고무하는 방법을 택했다.

1990년대 말에 그린스펀은 가계 소비지출을 지속시키기 위해 주식시장 호황을 촉진했다. 2000년에 주식시장 거품이 꺼지다 미국 경제가 불황에 접어들자, 연방준비제도이사회는 금리를 크게 낮췄고 조지 W 부시 정부는 부자들의 세금을 줄였다.

그렇게 해서 미국에서 소비 목적의 대출과 소비지출이 다시 급격히 확대될 수 있었다. 이것은 미국과 유럽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값싼 제조업 제품을 수출하는 중국 경제가 빠르게 성장하는 것과 결합해서 세계 경제가 불황에 빠지는 것을 막을 수 있었다.

투자자들은 이러한 정책에서 비롯한 문제를 때문에 불안감을 느꼈다. 그 문제들 중 하나는 세계경제의 ‘불균형’이다. 현재 미국은 수출보다 수입이 훨씬 더 많다. 미국은 그에 따른 무역수지 적자를 미국 시장에 많은 제품을 수출하는 중국과 여러 동아시아 경제의 중앙은행에서 돈을 빌려서 메웠다. 최근 IMF는 이런 불균형을 조사하기로 결정했다.

그러나 다른 문제도 있다. 지금 중국을 포함한 주요 국민경제들의 주요 덕분에 20년 만에 처음으로 원료 가격이 크게 오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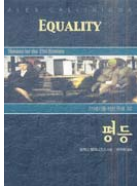
이런 변화를 보여 주는 가장 중요한 지표는 석유 가격이 배럴당 70달러까지 치솟은 것이다. 이것은 인플레이션이 심각한 걱정거리가 됐음을 뜻한다. 금융시장[금융자본가들]은 연방준비제도이사회가 인플레이션을 용인해서 통제를 잃거나, 또는 인플레이션을 너무 강하게 통제해서 불황을 유발하지 않을까 두려워하고 있다. 어떤 이들은 1970년대의 경제 문제였던 인플레이션과 실업이 함께 노는 ‘스태그플레이션’의 재연을 예기하고 있다.

이런 모순된 불안은 지금 상황이 얼마나 불안정한지를 보여 준다.

조지 W 부시는 금융시장을 안심시키고 몰락하는 정부에 대한 지지를 확보하기 위해 헨리 폴슨을 신임 재무장관으로 임명했다. 부시 정부의 전임 재무장관들은 산업자본가들이었지만, 폴슨은 월스트리트에서 가장 강력한 투자은행인 골드만 삭스 회장 출신이다.

그러나 세계경제가 곤경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그런 임시방편 이상이 필요하다. 세계 자본주의의 관리자들이 불황을 피하기 위해 사용할 수단이 이제 그들을 괴롭히고 있다.

캘리니코스 신간 안내



《평등》 알렉스 캘리니코스 지음 선우현 옮김, 울력

《반 자본주의 선언》의 전편이라고 부를 수 있는 이 책에서 알렉스 캘리니코스는 진정한 평등의 의미에 대해 얘기하며, 왜 자본주의에 맞서 싸울 때만 그것을 성취할 수 있는지 설명한다.

다함께의 기본 입장

노동계급의 자기해방

자본주의는 착취, 억압, 빈곤, 환경파괴, 전쟁 등을 낳는다. 이것은 자본주의 하에서 노동자들이 사회의 부를 만드는데도 생산과 분배를 통제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는 노동자들이 부를 집단적으로 통제하고, 이윤이 아닌 인간의 필요에 따라 부의 생산과 분배를 민주적으로 계획하는 사회를 위해 싸운다. 오직 노동자들 자신의 대중 투쟁으로써만 자본주의 착취·억압 체제를 없애고 그러한 사회를 건설할 수 있다.

근본적 사회변혁

자본주의 체제 내에서 이뤄지는 점진적 개혁들은 착취와 억압을 끝장내지 못한다. 자본주의는 폐지되어야 한다. 자본주의 국가기관들은 종립적으로 운용되는 것이 아니라 피억압자들의 투쟁으로부터 지배계급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사용된다. 노동계급에게는 완전히 다른 종류의 국가가 필요하다.

국제주의

노동자들은 국제적인 계급이고 근본적 사회변혁을 위한 투쟁은 국제적인 투쟁이다. 우리는 노동자들 사이의 민족적 분리를 극복하고 국제적인 노동계급 운동을 건설하기 위해 다른 나라 노동자들과의 연대를 지지한다. 우리는 한 나라의 노동자들을 다른 나라 노동자들에 맞서게 만드는 모든 것에 반대한다. 우리는 북한 난민과 이주노동자의 이주 규제에 반대한다. 우리는 제국주의 열강들의 세계 지배와 그들의 전쟁에 반대하고, 제국주의 지배에 맞서는 피억압 민족의 민족해방 운동을 지지한다. 근본적 사회변혁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한 나라에 고립돼서는 안 되고 국제적으로 확산되어야 한다. 옛 소련과 동유럽처럼 북한과 중국과 쿠바는 진정한 사회주의가 아니다. 이 나라들도 노동자들을 착취하고 억압하는 비민주적 사회이다. 우리는 그 곳 노동자들이 지배 관료에 맞서 벌이는 투쟁을 지지한다. 남북한의 민중은 자신이 적합하다고 여기는 방식으로 통일할 권리가 있다. 그러나, 노동계급은 국제 변혁의 일환으로서 남북한 모두에서 근본적 사회변혁을 이루는 데까지 나아갈 필요가 있다.

억압으로부터의 해방

자본주의 하에서는 여성 차별, 인종 차별, 동성애자 차별 등과 같은 특정한 형태의 억압을 당하는 사회집단들이 있다. 이러한 억압들은 노동자들을 분열시키고 노동자 연대를 약화시키는 데 이용된다. 모든 형태의 억압에 반대해 민주적 권리를 옹호하는 투쟁은 근본적 사회변혁을 위한 투쟁에 없어서는 안 되는 한편, 근본적 사회변혁 없이는 억압으로부터의 해방이 불가능하다. 우리는 여성, 이주노동자, 동성애자, 그밖에 영세노점상과 철거민과 빈민 등 억압당하는 사람들이 자신을 지키기 위해 싸우는 것을 지지한다. 우리는 정치적·시민적 권리를 억압하는 국가보안법을 철폐하기 위해 투쟁한다.

현장조합원 운동

노동조합은 노동자들의 경제적·정치적 권리를 위한 투쟁에 없어서는 안 된다. 그러나 노조 지도자들의 역할은 자본주의와 협상하는 것이지, 자본주의를 끝장내는 것은 아니다. 우리는 노조 지도자들이 싸울 땐 그들을 지지하고, 그들이 노동자들을 배신하면 그들로부터 독립한 현장조합원 대중 행동을 건설한다.

변혁 정치조직

노동자들이 근본적 사회변혁을 이루려면, 가장 전투적인 노동자들이 변혁 정치조직을 건설할 필요가 있다. 근본적 사회변혁 지지자들은 노동자들과 억압당하는 사람들의 대중조직 속에서 활동함으로써만 변혁 정치조직을 건설할 수 있다. 우리는 개량주의 지도자와 개량주의 사상이 피억압 대중의 이익에 어긋남을 실천에서 입증해야 한다. 우리는 우리의 기본 입장에 동의하는 사람들 모두에게 변혁 정치조직을 건설하는 투쟁에 동참할 것을 촉구한다.

직장, 학교, 지역사회의 투쟁 소식과 사진들을 보내 주십시오. 다음 호 기사 마감은 6월 17일(토)입니다.

삼성일반노조 김성환 위원장의 투쟁과 승리

지난 5월 21일 영등포교도소에서 재소자 인권보장과 관련한 6개 요구 조건을 내걸고 단식투쟁에 들어갔던 김성환 위원장이 단식 13일 만에 의미 있는 승리를 거뒀다. 1949년 설립된 영등포교도소는 “직업훈련 교도소”라는 이유로 재소자들에게 “다 풀어진 오텍국”, 묶어빠진 반찬을 주는가 하면, 시설 보수를 전혀 하지 않아 샤워장엔 수도꼭지도 없고 병사에는 창문조차 설치돼 있지 않았다. 교도소 당국은 이런 문제가 밖으로 새나갈까 두려워 특별한 이유 없이 김 위원장의 “익일특급” 서신을 여러 차례 “보통등기”로 발송하는가 하면 <한겨

레신문> 기자의 취재마저 방해했다. 단식투쟁 이후에도 당국은 “규정대로 했을 뿐”이라며 고압적인 자세를 취했지만, ‘김성환위원장석방대책위’와 민가협 등 인권 단체들이 개입하면서 점차

이슈화되자 당혹스러웠던지, 5월 19일부터 병사 창문 설치 공사에 들어갔고, 6월 2일 인권단체 활동가들, 김성환 위원장, 부인 임옥경 씨가 합석한 자리에서 직원들의 잘못을 시인하고 재발방지를 약속했다. 뿐만 아니라 즉석에서 뉴스 생방송 실시, 샤워장 수도꼭지 설치를 약속했다. 이번 승리는 재소자들의 전반적인 처우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건강 악화의 위험을 무릅쓰고 단식을 결행한 김 위원장의 투쟁과 외부 단체들의 적절한 연대가 힘을 발휘해 얻어낸 값진 성과였다.

유청하



정기 구독하십시오

짧 6개월 / 2만 원
(신문값 15,500원 + 우송료 4,500원)
짧 1년 / 4만 원
(신문값 31,000원 + 우송료 9,000원)
계좌 번호 (예금주 백은진)
국민은행 048402-04-014849

.....

.....

.....

.....

인터넷에서도 기사들을 볼 수 있습니다. <http://www.counterfire.or.kr>

박노자의 <맞불> 창간축하메시지

세상에 ‘천하가 모르는 눈물’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편의점의 ‘알바생’부터 대공장의 비정규직까지, 수많은 약자들이 수탈과 폭력을 당할 때에 이 사회의 언론을 장악한 소위 ‘주류 언론’들이 이를 거의 제대로 보도하지 않습니다. 그만큼 대기업들과 유착이 심하고 대기업의 광고에 의존하는 것입니다. 제가 <맞불>에 기대하는 것은 무수한 약자들의 눈물을 천하에 알리고, 나아가서는 천하의 약자들을 조직하여 강자가 약자를 수탈하는 구조 자체를 바꾸는 데서 선봉의 역할을 해주었으면 하는 것입니다.

지역 사회포럼

남부지역 사회포럼
5.31 지방선거 이후 - 민주노동당은 어디로?
김민식(주간 <맞불> 발행인 민주노동당 전 정책위의장 후보)
6월 19일(월) 오후 8시
한화오벨리스크(강남역 4번 출구)
문의 : 011-9232-5818

동부지역 사회포럼
한미FTA — 무엇이 문제이고 어떻게 싸울 것인가?
이유진(녹색연합 활동가), 이정구(한미FTA저지범국민운동본부 정책기획팀 활동가)
6월 22일(목) 오후 7시30분
동부여성플라자(건대입구역 6번 출구)
문의 : 019-9731-7299

대학 맑스주의 포럼

마르크스의 혁명적 사상
최일봉(‘다함께’ 국제연락간사)
6월 22일(목) 오후 5시
이화여대 포스코관 151호

한미FTA가 망가뜨릴 우리의 삶
우석균(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국장, <한겨레> 칼럼니스트)
6월 21일(수) 오후 6시 30분
고려대 정경대 507호

한국전쟁, 누구를 위한 전쟁이었나
한규한(주간 <맞불> 기자)
6월 21일(수) 오후 5시
한양대 자연대 B114호

참가비 : 1천 원
문의 : atgstudent@hanmail.net
010-2752-2003

‘다함께’에 가입하십시오!

미국의 이라크 점령과 이란 공격에 반대하십니까? □
비정규직화와 한미FTA에 반대하십니까? □
이윤보다 사람이 먼저라고 생각하십니까? □
성, 성 지향, 인종에 따른 차별에 반대하십니까? □
토론하고 논쟁하고 투쟁을 조직하는 활동가들의 단체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 표시 하셨습니다까? 그렇다면 ‘다함께’에 가입하십시오. 전쟁과 신자유주의적 세계화에 반대해 함께 투쟁합시다. ‘다함께’는 여러분이 필요합니다.

이름.....
소속.....
연락처.....
e-mail.....
회비 약정액.....
월 1만 원 이상 (대학생은 5천 원 이상, 청소년은 3천 원 이상)

다함께는 정부나 기업으로부터 어떤 명목으로도 보조금이나 지원금을 받지 않습니다.

후원 계좌 : 국민은행 048402-04-014849 예금주 : 백은진

고려대 출교 조치 철회 투쟁도 계속되고 있다

지난 5월 30일에는 학생 운동 탄압에 맞선 대학생들의 공동 시위가 벌어졌다. 명동 한복판에서 출교 철회와 어윤대 총장 반대 구호가 울려 퍼졌다. 시위 참가자들은 어윤대 총장의 악랄함을 효과적으로 시민들에게 알렷다. 행진 중에 배포한 유인물을 받아든 시민들은 “무슨 놈의 교육이 이 따위냐”며 분노했고 출교자들에게 “끝까지 싸우라”는 문자 메시지를 보내 주기도 했다.

출교 철회 투쟁에 대한 연대도 계속되고 있다. 출교자들은 민가협(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목요집회에 초청받아 연설하기도 했다. 어머님들은 “독재 정권에서도 출교하지 않았다”며 “고려대는 계속해서 시대를 거꾸로 가는가, 자네와 자네 어머님 가슴에 못을 박은 총장은 천벌을

받을 것이다” 하고 출교자들을 격려하며 후원금도 전달했다.

국제적 연대도 늘어나고 있다. 전에 영국 교수들이 성명을 발표한 데 이어 영국 미들섹스 대학교 총학생회, 맨체스터 대학교 총학생회, 전국 대학생연합 집행위원회가 보낸 고려대 징계 반대 성명이 도착했다. 태국 출라롱콘 대학교 교수들도 징계에 반대한다는 메시지를 보내왔다.

농성 50일차에 벌어진 1학기 마지막 행동에는 학생들과 학내 비정규직 노동자들 3백여 명이 시위를 벌이고 학내 행진을 벌였다. 이 날 출교자 김지운 씨의 어머니는 “두 달이 다 되도록 대화 한 번 하지 않는 학교가 도대체 제대로 된 학교냐”고 연설해 큰 박수를 받았다. 1 학기를 정리하면서 발행한 종강 특

별신문은 하루 만에 학생들이 8천 부나 받아가 징계 철회 투쟁에 대한 관심이 학생들 사이에서 여전히 높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학내외 출교 반대 여론에도 불구하고 학교 당국은 아직 물러서지 않고 있다. 오히려 농성 50일차에 출교자들에게 특송우편을 보내 천막을 철거하지 않을 경우 “적법한 조치”를 취할 것이며 “불미스런 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고 협박했다.

고려대 징계자위원회는 이러한 학교 당국의 위협에 전혀 위축되지 않고 6월 12일에 총무처장 면담을 요구하며 본관 앞에서 시위를 벌였다. 고려대 징계자위원회는 앞으로도 더욱 강력히 투쟁할 것을 결의하고 있다.

강영만

외대 노학연대 투쟁은 계속된다

외대 노동자들이 두 달 가까이 파업을 굳건하게 유지하고 학생들 사이에서 파업 지지 입장이 확산되자 학교는 잠시 대화 제스처를 보이며 교섭을 재개했었다.

그러나 5. 31 지방선거에서 한나라당이 반사이익으로 압승한 분위기에다, 시험기간과 방학 때문에 파업에 대한 학생들의 관심이 줄어든 때를 틈타 학교는 3명의 노동자에게 파면과 해고를 감행하고 파업 참가자 전원에게 업무복귀명령을 내렸다.

그러나 업무복귀시한이 지난 지금까지도 파업 이탈자가 한 명도 없을 정도로 파업은 굳건하게 유지되고 있다. 학교가 15명에 대해 또 추가 징계를 시도하자 파업 노동자들은 징계위원회가 열리지 못하도록 집단적으로 막았고, 징계는 연기됐다.

협박

우파 총학생회는 ‘4·11 폭력난동’에 대해 사과한 뒤 잠시 주춤하는 듯했으나 학교가 파면을 감행하자 다시 파업 비난에 열을 올리고 있다.

박철 총장이 업무복귀명령을 내린 날, 총학도 노조의 업무복귀를 종용하는 메일을 전체 학생과 노동자들에게 보냈다. 총학은 주재님게도 학교가 제시한 업무복귀시한보다 더 이른 복귀시한을 제시하면서 복귀하지 않으면 학교에 징계를 요청하고 노조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것이라고 협박했다.

또, 총학은 “직원들을 과

감하게 정리하여 지출 규모를 합리화”해야 한다며 학교 당국에 더 “강력한 구조조정”을 하라고 주문했다. 학교가 머뭇거리면 “분노는 학교 당국을 향하게 될 것을 명심”하라는 경고까지 덧붙이면서 말이다. 이들의 행태는 마치 충분히 우파적인 한나라당에게 더 우파적으로 행동하라며 주문하는 <조선일보>를 떠올리게 한다.

양비론

한편, 외대 진보적 활동가들 중 일부는 레인메이커(Rain Maker)라는 단체를 결성했다. 이들은 처음에는 등록금을 인상하고 파면을 추진하려는 학교를 주되게 비판하는 올바른 입장을 취했다. 그러나 총학이 공격하자 “학생들이 그 동안 등록금을 인상한 학교와 불친절한 교직원 모두로부터 고통 받아왔다”며 학교와 노조를 모두 비판하는 것으로 후퇴했다.

이런 양비론은 파업 노동자들을 파면하며 대화를 가로막은 책임이 전적으로 학교에 있다는 사실을 가리고, 비정규직 정규직화나 식당 외주화 반대 등 정당한 요구를 내놓은 노동자들의 투쟁을 외면함으로써 의도치 않게 학교와 우파 총학의 힘을 강화시켜 줄 수 있다.

외대 ‘다함께’ 회원들은 학교와 총학의 노조 탄압에 일관되게 맞서는 운동을 건설하며 연대를 확산시키려는 노력을 곳곳이 계속하고 있다.

최미진, 조명훈

비정규직 투쟁의 선봉에 선 KTX 노동자들

KTX 승무원들의 투쟁이 1백 일을 맞이하던 6월 8일, ‘KTX 승무원 정리해고 철회 및 직접고용을 촉구하는 1천5백인 선언 참가자’들은 “이제 노무현 대통령이 나서라”고 정부에 촉구했다.

시간이 흐를수록 KTX 문제의 원인은 바로 사유화를 확대하려는 정부의 정책에서 비롯한다는 사실이 밝히 드러나고 있다.

사실 노무현 정부는 재임 기간 내내 철도를 사유화하기 위해 필사의 힘을 다해 왔다. 물론 노동자들의 저항으로 철도가 곧장 사유화되지 못하고 공사로 전환했지만, 정부는 공사와 이후로도 구조조정과 외주화를 끊임없이 시도해 왔다. 최근에는 철도 정규직 노동자들의 자연 감소를 정규직으로 채용하지 않고 외주 위탁하겠다는 공문을 발표했다!

철도노조가 KTX 문제를 빼놓고 파업을 끝낸 것이 왜 문제였는지, 철도 정규직 노동자들이 이 투쟁에 연대하는 게 왜 중요한지 더욱 분명

해진 것이다.

사유화를 계속 확대하려는 노무현 정부로서는 사유화 정책의 시험대이기도 한 KTX 승무원들의 투쟁에 쉽게 굴복할 리 만무하다. 그만큼 KTX 투쟁은 장기화할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노무현 정부의 극심한 탄압에 맞서고 있는 KTX 노동자들의 투지도 매우 굳건하다.

“처음에 파업할 때에는 이렇게까지 우리의 요구가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인지 몰랐어요. 투쟁을 하다 보니 문제가 원인이 매우 심각하다

는 것을 깨달았죠. 외주위탁, 비정규직, 여성노동자 문제 이 모든 것들이 중첩돼 있어요.”

“여러 노동자들이 겪고 있는 문제가 한꺼번에 중첩돼 있는 만큼 우리가 승리한다면 사회에 미칠 파급력도 크다고 생각해요. 그만큼 우리의 투쟁 승리를 기원하는 사람들도 많죠.”

“앞으로는 우리 문제뿐 아니라 정부의 비정규직 양산 대책도 함께 비판하고 폭로하는 일에 주력할 예정이에요.”

오정숙

대구·경북지역 건설 노동자들의 파업

건설 현장에서 죽도록 일하고도 “노가다” “막노동꾼” “개잡부” 등으로 불리며 천시를 받아 온 건설 노동자들이 지난 6월 1일, 대구·경북 지역에서 파업의 깃발을 올렸다. 노동자들의 요구는 “적정임금 인상, 조합원 우선 고용, 불법다단계하도급 철폐, ‘쓰메끼리’(장기간 임금체불) 근절” 등이다.

대구·경북지역건설노조 조합원의 80퍼센트(주로 형틀 목수, 철근공)인 2천여 명이 참여한 이번 파업으로 80여 곳의 공사가 중단됐다. 그러자 경찰은 파업 노동자들을 “폭도”로 매도하며 ‘건설 현장에 접근

하면 무조건 112로 신고하라’는 내용의 ‘협조문’을 곳곳에 뿌리고 있다. 뿐만 아니라 대구지역건설노조 조기현 위원장에게는 ‘현장 펜스에 스프레이를 칠했다’는 등의 사소한 이유로 소환장을 발부했다.

정부는 지금 노동자들의 파업은 “불법”으로 몰아세우고 있지만 정작 그 동안 건설 현장에서 다단계 하도급, 산재은폐, 임금체불 등 건설업체 사장들의 불법 행위에는 눈감아왔다. 건설 경기가 불황이던 시절에도 원·하청 업체는 모두 적정 공사단가를 보존해 주는 정부의 각종 지원제도로 실리를 챙겼고, 이 돈의 일

부가 다시 정치권으로 흘러 들어가 “검은 돈”이 됐다. 그러나 건설노동자들은 퇴직금, 4대 보험도 없는 상태에서 외환위기 때보다 더 낮아진 임금을 받으며 산재로 해마다 8백여 명이 속칭 “개죽음”을 당했다.

이번 파업은 일요일도 없이 몸이 부서져라 일해도 밀바닥 생활에서 벗어날 수 없는 건설 노동자들의 분노에 찬 절규다. “사회 양극화 해소”를 말하는 노무현은 이 나라의 대표적 빈곤층인 건설 노동자들의 정당한 요구를 다시 전경들의 군화발로 짓이기려 하고 있다. 하지만 2005년 울산건설플랜트노조 투쟁에서 봤듯이 더는 빼앗길 게 없는 건설 노동자들은 쉽게 물러서지 않을 것이다.

유청하

칠레 중고등학생 투쟁 승리!

지난 5월 중순부터 3주 가량 지속된 칠레 학생들의 시위와 점거농성이 승리로 끝났다.

칠레 학생들은 1990년에 도입된 신자유주의적 교육법 때문에 지역간 교육불평등이 확대됐으며 불평등 심화 해소를 요구했다. 또, 학생들의 대중교통 무료이용권, 40달러인 대입시험 전형료 폐지, 교사충원, 학급 규모 축소, 교육시설 개선 등도 요구했다.

피노체트 군사정부에서 만들어진 현행 교육법은 중앙정부의 교육재정 부담을 대폭 줄이고 지방자치단체에 교육재정을 위임했다. 이 때문에 가난한 지역의 학교는 학생당 교육비가 매달 73달러인 데 비해, 부유한 지역은 3백85달러에 이를 만큼 교육 불평등이 심해졌다.

또, 기업이 교육사업에 진출하면서 사립학교와 공립학교의 교육 격차도 커졌다. 전체 고등학교 졸업자의 50퍼센트가 대학에 들어가지 못하지만, 사립고등학교 졸업자의 91퍼센트는 대학에 진학하고 있는 것이다.

지난 5월 31일에는 인구가 1천6백만 명인 칠레에서 80만 명의 학생들이 시위에 참가했고, 수백 개의 학교에서 점거농성에 들어갔다. 대학생들도 동맹휴업으로 연대했고, 교사와 학부모들도 농성장에 먹을 것을 가져다주며 연대를 표시했다.

사립학교 학생들도 “우리는 공립학교 학생들을 지지한다”는 배너를 학교에 걸고, 6월 1일에는 투쟁을 지지하는 행진도 했다.

칠레 학생들의 이번 투쟁은 라틴아메리카에서 일어나고 있는 변화, 특히 차베스와 모랄레스 등이 추진하고 있는, 신자유주의에 역행하는 정책들에서 고무받았다. 그리고 CPE(최초고용계약 법안)에 반대

하는 프랑스 학생들의 대규모 시위도 칠레 학생들에게 영감을 줬을 것이다.

게다가 칠레의 주요 수출품인 구리의 가격이 크게 오르면서 칠레 정부에 재정적 여유가 생긴 것도 학생들의 자신감을 높였다.

결국 올해 초에 당선한 중도좌파 대통령인 바첼렛은 6월 1일 “해마다 1억 3천5백만 달러[한화 약 1천3백억 원]의 교육예산을 추가로 투입”하겠다고 약속했고, “학생들의 요구대로 대입시험 전형료를 폐지하고 빈곤층 학생에게 무료급식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교육법 개혁안도 마련하겠다”고 제안했다.

그러나 학생들은 “대통령 제안에 대중교통비 무료화가 빠져 있고 추상적”이라며 6월 5일에 다시 대규모 시위를 벌였다. 이 시위에는 중고등학생들만 60여만 명이 모였고, 대학생과 교사와 노동자들도 40여만 명이나 가세했다.

결국 칠레 정부는 학생대표 12명을 포함해 74명으로 구성된 대통령 자문기구를 설치해 교육법 개혁을 논의하기로 했고, 학생들은 이 요구를 수용했다.

한국에서도 신자유주의 교육정책 때문에 많은 학생들과 학부모들이 고통받고 있다. 한국 대학들은 사실상 학생들의 등록금만으로 운영되고 있고, 자립형 사립학교 도입으로 중고등학교 간 교육 격차는 더욱 커지고 있다. 지난 4년 동안 강남구의 교육 관련 지원비가 1백70억 원인데 비해 금천구는 4억 원뿐일 정도로 지역간 교육격차도 심각하다.

거대한 시위와 학교 점거 투쟁으로 중요한 승리를 거둔 칠레 학생들은 우리에게 신자유주의 교육정책에 맞설 수 있는 방법을 보여 주고 있다.

강동훈

반자본주의자와 사회주의자의 포럼이자 축제

2006 “전쟁과 혁명의 시대”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다함께’가 주최하는 여름 진보포럼 “전쟁과 혁명의 시대”가 올해로 7회째를 맞이합니다. “전쟁과 혁명의 시대”는 지난해만 1천5백여 명의 학생, 노동자, 청소년들이 등록한 한국 최대 진보 포럼입니다.



● 2006 “전쟁과 혁명의 시대” 연사들

크리스 나인햄 유럽사회포럼/세계사회포럼 조직자 강남훈 한신대 경제학과 교수 **강양구** <프레시안> 기자 **곽이경** 민주노동당 성소수자위원회 교육위원 **권영근** 한국농어촌사회연구소 소장 **김광일** 파병반대국민행동 기획단, ‘다함께’ 운영위원 **김무용** 역사학연구소 연구실장 **김반장** 서울 밴드 ‘원디시티’ 드럼&보컬 **김선동** 민주노동당 사무총장 **김세균** 서울대 정치학과 교수 **김원일** 미국 라시에라대학교 성서학 교수 **김종철** 전 민주노동당 서울시장 후보 **김인식** ‘다함께’ 운영위원, 주간<맞불> 발행인 **김하영** <국제주의 시각에서 본 한반도> 저자, ‘다함께’ 운영위원 **나상윤** 공공연맹 정책위원장 **박거용** 한국대학교육연구소 소장 **박노자** <당신들의 대한민국 1, 2> 저자 **박인규** <프레시안> 대표 **송재혁** 문창중학교 교육노동자 **아노아르** 서울경기인천이주노동자노동조합 위원장 **안영준** 전 <한겨레> 기자 **우석균**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국장 **이봉화** 민주노동당 서울시당 여성위원장 **이윤경** 전국보육노조 사무처장 **이철호** 참교육연구소 부소장 **이해관** KT 해고 노동자 **전명혁** 성공회 대학교 민주자료관 연구교수 **정성진** 경상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정정훈** 공익변호사 그룹 ‘공감’ 소속 인권변호사 **정종남** 투기자본감시센터 사무국장 **최갑수** 서울대 서양사학 교수이자 한국서양사학회 회장 **최규진** 역사학연구소 연구원 **최무영** 서울대 물리학과 교수 **최일봉** ‘다함께’ 운영위원이자 신문편집자 **한석호** 평등사회로 전진하는 활동가 연대 집행위원장 **허영구** 민주노총 부위원장이자 한미FTA저지 특위 위원장 **홍미정** 한국외국어대학교 중동연구소 교수 등

“전쟁과 혁명의 시대” 최고 장점은 민주적으로 운영되는 청중 토론입니다. 토론회 시간 가운데 3분의 1 이상이 청중들을 위한 시간이며, 이 시간 동안 누구든지 3분 동안 발언할 권리가 있습니다.

- “전쟁과 혁명의 시대”에 참가하는 분들을 위해 무료 어린이 놀이방을 운영합니다.
- 더 자세한 내용과 참가신청은 “전쟁과 혁명의 시대” 홈페이지 www.marxism.or.kr를 참조하십시오.

기간 : 7월 14일(금) ~ 7월 17일(월)

장소 : 고려대학교

주최 : 다함께

참가신청 : 전화 02-2271-2395

인터넷 신청 www.marxism.or.kr